

보도자료

2011년 3월 8일(화)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네트워크정책국 네트워크정보보호팀 박철순 팀장 (☎750-2750)
네트워크정보보호팀 이상국 사무관 (☎750-2757) sklee@kcc.go.kr

PC 하드디스크 손상 방지를 위해 신속한 백신 치료 요망 (손상 관련 사례 444건 신고)

정부는 3월 8일(화) 9시 현재까지 PC 하드디스크 손상 관련 사례가 444건 신고 되고, 새로운 변종 악성코드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한 전용백신 치료를 당부하였다. 특히 이번 악성코드의 초기 유포지로 알려진 파일공유 사이트를 최근 이용한 사람은 자신의 PC가 급변 악성코드에 감염되었는지의 여부를 전용백신을 통해서 검사하여 치료하고, 당분간 보안이 취약한 웹하드 서비스 등의 이용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번 악성코드는 최근 자동으로 새로운 명령을 받고 즉시 PC 하드디스크를 손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안전모드로 부팅한 후 전용 백신으로 감염 여부를 파악하여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하드디스크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시스템 운영체제(OS)를 재설치 하거나, PC 제조사의 AS센터 또는 전문PC수리업체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최근 보호나라 홈페이지를 사칭한 피싱 사이트가 개설되어 이용자들에게 결제를 유도한 사례와 전용백신으로 위장한 악성코드가 유포된 사례가 발견됨에 따라, 이용자들은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m) 등 국내 주요 전용백신 배포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하고 무료 전용백신을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상당한 규모의 금번 DDoS 공격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방통위, 행안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공공기관들이 안철수연구소 등 민간과 합동으로 기민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으며 국민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인식도 많이 제고되었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 끝.

<긴급 PC 안전이용 수칙>

1) 네트워크 연결선(LAN선)을 뽑는다. (권장)

※ 기감염된 좀비PC는 악성코드 명령서버에서 즉시 파괴 기능 파일을 업데이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조치

2) PC를 시작한 후 F8 버튼을 눌러 (네트워크 가능한)안전모드를 선택하여 부팅한다. (필수)

3) 네트워크를 재연결한 후 보호나라(www.boho.or.kr 또는 www.bohonara.or.kr) 또는 안철수연구소(www.ahnlab.com)에 접속하여 전용백신 다운로드

※ PC가 이미 켜져 있는 경우에는 전용백신 곧 바로 다운로드

4) 전용백신으로 악성코드 치료후 PC 재부팅

5) 정상모드로 PC 재부팅 후에 정식 백신제품을 설치 후 PC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